

美 격추하겠다는데…北 ICBM 언제 쏠까

북외무성 “최고 수뇌부 결심하면 임의의 시각에 발사”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 앞서 이르면 2월 도발 가능성

대변인 성명 아닌 문답 형식 발표…‘엄포용’ 분석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감에 따라 구체적인 시험발사 시점이 언제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대륙간 탄도 로켓은 우리의 최고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밝힌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 준비를 마치고 시험발사를 실행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의 지시가 떨어진다면 언제라도 ICBM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은 ICBM을 아무 때나 시험발사할 수 있으며, 이를 막으려는 시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변인의 발언은 격(格)을 놓고 봤을 때 당장 발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엄포용’ 성격이 크다는 게 전

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장 발사한다는 의미라면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이 아니라 이보다 급이 높은 ‘대변인 성명’의 형식으로 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ICBM 발사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르면 오는 3월 키 리졸브(KR) 한미연합훈련에 앞선 2월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핵위협을 거두는 전제조건으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 한미훈련의 중단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전 앞에서 전쟁연습소동을 견어 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이 이날 한미연합훈련을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남 공세를 강화

한 것도 껀을 같이 한다.

김동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ICBM인 KN-08과 KN-14를 열병식 때만 선보였을 뿐 실제로 공중에 날린 적은 없다”며 “오는 2월에서 4월 사이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시험발사한다면 500km에서 1000km만 날려보낸 뒤 연료를 다 채우면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1만km에 이른다”고 주장할 것”고 덧붙였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올해 키 리졸브 훈련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끝난다면 북한이 ICBM을 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ICBM 발사 위협에 미국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만약 그것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또 우리 동맹이나 친구 중 하나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격추할 것”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㉔ 남제를 건국한 소도성

소도성(蕭道成·427~482)은 남남릉 출신으로 자는 소백이다. 한미한 가문 출신으로 하급 병사에서 시작해 유송 왕조를 무너뜨리고 남제를 건국했다. 시호는 고제다.

그는 유송의 문제때 하급 군인이 되었다. 여러 전투에서 군공을 세워 군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471년 산기상시와 태자좌위술이 되었다. 내란을 진압해 중령군장군으로 승진해 군의 실력자가 되었다. 5세기 후반 유송 왕조는 황족간 극렬한 내분에 휩싸였다. 창업군주 유유의 뒤를 이어 선정을 배론 문제가 453년 황태자에게 피살되었다. 황태자는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수의 황족과 귀족을 죽였다. 강주에 주둔한 황자 유준이 황태자의 폭거에 반발해 반란을 일으켜 새로운 황제가 되니 효무제다. 효무제 역시

드시 의심을 사게 된다. 골육상잔은 오래갈 조짐이 없다.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경들과 죽을 힘을 다 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유육은 그의 위협과 명성이 높아져 죽이려고 했다. 이에 먼저 양육부를 시켜 왕을 시해하고 안정왕 유준을 즉위시키니 유송의 마지막 황제 순제다. 11세 어린 황제를 대신해 국정을 사실상 장악했다. 황제가 되고 싶었지만 아직 조정내에 반대 세력이 있고 명분도 약해 일시적으로 유준을 황제로 세운 것이다. 태위, 태부, 상국, 제공으로 봉해져 유준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479년 4월 측근인 왕경족이 군사를 동원해 궁궐에 들어가 옥새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결국 선양의 형식으로 황제가 되고 국호를 남제로 바꾸었다.

그는 재위기간 강력한 긴축정책을 폈다. 절약과 근검을 강조하고 세금부

하급병사 출신 나라를 세우고 이끈다

무자비한 친인척 숙청을 단행했다. 황태자와 그의 아들을 죽이고 머리와 몸체를 따로따로 전시했다. 왕실은 피비린내 나는 골육상쟁으로 무너졌다. 효무제는 재물을 크게 탐해 지방관이 조정에 돌아올 때는 반드시 진상토록 하였다. 노름을 좋아해 자신들을 등쳐먹곤 했다고 한다. 뒤를 이은 명제는 죽은 형 효무제의 아들을 열여섯이나 죽였다. 유송의 멸망은 황족 내부의 싸움으로 촉진되었다. “아! 이제는 두 번 다시 왕가에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효무제의 여덟째 아들 유자란의 절규는 당시의 참상을 잘 보여준다.

명제의 뒤를 이은 유육은 장군 소도성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반대하는 다수의 왕족과 대신을 처형했다. 유씨 일족은 사실상 씨가 마를 지경이었다. 피비린내는 골육간의 갈등에 관해서는 “멀리서 건강을 바라보니 작은 강물이 거꾸로 흐르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연후에 동생이 형을 죽이네”라는 시구가 널리 회자되었다. 그가 조정에서 임궐하라는 명을 받아 주변에서는 조정이 대신들을 잔인하게 죽이므로 부름에 응하지 말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그는 “주상께서 태자가 어리고 약하므로 스스로 여러 동생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어찌 남과 관계가 있겠는가! 오래 머뭇거리고 관망하면 반

담을 줄여주었다. 우완지의 건의에 따라 교적관을 설치해 45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호적을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누실된 세원 발굴과 세수 증대, 난·유민의 방지를 꾀했다. 그러나 가문과 지역간 이해관계가 크게 얽혀 485년 당우의 반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는 침착하고 그릇이 컸다. 박학하고 청렴하며 검소한 인품을 가졌다. “내가 천하를 10년간 통치하면 그때 황금을 흙과 같은 가치로 만들겠다”고 말하곤 했다. 유송 왕실의 참극을 생생히 목격해 늘 자손들에게 우애와 단결을 강조했다. 왕실의 갈등이 왕조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극력 경계했다. 482년 임종하면서 태자 소색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유씨 왕족이 서로 죽이지 않았다면 소색 가문이 천하를 얻을 수 없었다. 가족에게 과오가 있으면 오히려 혼계하되 죽여서는 안된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규칙이다. 대대손손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고 유언했다. 유씨 일족의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했다. 그의 아들인 무제 치세 11년간은 왕실의 단결이 지켜졌으나 이후 사촌인 소란과 그의 아들 소보권 대에 이르러 골육상잔이 되풀이되었다. 남제는 502년 화제를 끝으로 멸망했다.



필리핀 최대 종교 축제 ‘블랙 나자렌’ 9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검은 예수 성상을 앞세우고 거리 행진을 하는 ‘블랙 나자렌’ 축제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에서는 이 성상의 신비로운 힘이 건강과 부를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연합뉴스

황교안 권한대행 트럼프 취임식때 축전 보낸다

한미동맹 강화 서한 형식

전화통화·특사 파견은 없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맞춰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이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9일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라며 “이번 축전은 과거와 비교해볼 때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단순한 취임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한미 동맹의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서한’의 형태로 축전을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황 권한대행은 현 단계에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는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부는 또 미국 정부가 대통령 취임식에 외국 인사들을 초청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정부 차원의 별도 특사를 파견하지는 않고, 안호영 미국 주재 대사만 한국 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 외교가 위안부 소녀상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각각 일본,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축전이 향후 트럼프 행정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가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

토지 500평, 건물 904평

★ 감정가 55억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첨단 사무실 임대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010-7384-7800

상가매매 전문

- ① 수원지구 3층 건물 어룡신협 앞
토 97평 건 145평 / 1층 (골프매장) 2층~3층(상가)
▶매가 16억 8천 (용 5억) 보 1억 월 700만
- ② 노대지구 (3층) 대단위 아파트 (코너자리)
토 251평 건 431평 1층 (식당/미용실) 2층 (식당/상가)
3층 (오피스텔 - 13개) (보1억6천 월 1천300만) ▶매가 27억
- ③ 월산동 (3층)상가 매매 (농성역 / 힐스테이트 5분)
토 132평 건 404평 1층 (은행) 2층~3층(상가)
4층~5층(독자실) 6층(주택) ▶ 매가 22억
- ④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천변로 전망 최고) (올리모델링 완비) (주차완비)
45평 보 1억 월 80만 ▶ 매가 1억4천만 (용5천)
- ⑤ 상무지구 오피스상가 매매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9평) 보 500만 월 40만 (용 2천4백만)
▶ 매대 6천9백만
- ⑥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토 151평 건 423평 광주에서 40분 / 전원주택 최고 위치
▶ 매가 8천만
- ⑦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월,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보증금 500만
- ⑧ 서구 쌍촌동 일몰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전역 변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⑨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 전망 훌륭,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매가 3천 5백만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서구매월동 (장례식장)
토 2,911평 건 1,363평
현 장례식장 운영
한정주역 1분
▶감정가 110억 → 최저가 110억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복합 상가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58억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톨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 동구 수기동 (2층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 역 2분거리
4차선도로점 / 2층 상가건물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6670-9800

첨단지구 식당임대

◆ 한우식당 장어집
강력추천 !!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첨단 메가박스
첨단 산업단지 1분
삼성전자 정문 앞

★ 보 5천
월 300만

커피숍 임대 전대 정문

북구 중흥동 모아아파트 후문
코너자리

* 평수 - 15평

◆ 올리모델링
즉시입주가능

★ 보 2천
월 60만

☎ 010-7384-7800
010-6670-9800

평택 투자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 120만평
▶ 110만평

브레인시티/평택항 개항/미군부대 이전

☆ 평택 매주 출발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로 모십니다.

평택시 전원주택지

송탄역 5분!! 송탄사거리 1분 !!

① 평수 1,610평
총 7필지분할
(토목공사 완료)

② 최고 입지 조건
(개발시 순수익 5억!!)

※1필지 200평 →
1억투자지 가능

☎ 062-511-7800
010-6832-9700